

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

김복순*

1. '코나투스 - 사회체계'로서의 연애
2. '모색의 서사'에 나타난 연애전유의 젠더적 차이
 - 2-1. 남성젠더 시선의 연애전유 양상
 - : 남성 중심적 소시민성과 폭력·소외로서의 연애
 - 2-1-1. 집합적 개체성과 '정착'의 매개로서의 연애
 - 2-1-2. 분열된 개체성과 몰화·소외로서의 연애
 - 2-1-3. 쾌락으로서의 연애에 대한 군사주의 재건 계몽의 처벌
 - 2-2. 여성젠더 시선의 연애전유 양상
 - : '여성의 자유'에 대한 모색과 낭만적 사랑과의 연관
 - 2-2-1. 취향·기호로서의 연애와 자유의 남녀 비대칭성
 - 2-2-2. 자의식적 개체성의 애정불임증과 자기형벌적 연애
 - 2-2-3. 하이틴의 발견과 '낭만적 사랑-군사주의 반공 계몽'의 상동성
3. 맺는말

국문요약

연애는 사회체계로서 코나투스를 지닌다. 1960년대 연애에서 우선성이 가장 작동하고 있는 범주는 '젠더' 범주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성젠더와 여성젠더 시선으로 나누어 연애가 각 젠더 시선 속에서 어떻게 전유되는지 그 양상을 검토하였다.

1960년대 남성젠더 시선의 서사에 나타나는 연애의 키워드는 '정착, 소외,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육체'였으며, 여성젠더 서사의 키워드는 '취향, 구원, 순결'이었다. 남성젠더 서사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남성 중심적 소시민성과 폭력·쾌락적 연애를 제시하였으며, 낭만적 사랑을 형상화 하지는 않았다.

뜨내기라는 집합적 개체성을 드러내는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에서 연애는 '살림을 차리'는 것, 즉 '정착'의 매개로 묘사되었다. 정착의 매개로서의 연애는 불쌍함, 눈물, 동정 등의 코나투스로 나타났다. '눈물'과 '동정'의 윤리는 집합적 개체성을 떠받치는 소설적 장치였다.

김승옥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부정'한다. 연애가 폭력적 남성성 및 여성성의 소외로 제시되고, 여성을 타자화·대상화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분열된 개체성의 코나투스는 번뜩이는 첩편, 끈덕진 살의, 암울을 쥐어짜는 회오와 사랑 등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적 연애는 열정이 배제된 사랑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김승옥의 연애는 근대화라는 폭력적 남성성을 환유하는 매개로서, 분열된 개체가 폭력적 근대화에 길항하는 방법이었다.

손창섭의 『부부』는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이미 정착하여 '육체'를 음미하게 된 소시민을 보여 준다. 부부간의 성적인 '미묘한 부조화'에 대한 타개책으로 스와핑을 제시하고, 실추된 남성성에 대한 회복 및 제처권(制妻權)의 확립 문제, '국가 사회를 위한 보건계몽봉사' 등 1960년대의 재건 계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문제적이다. 군사주의의 재건 계몽의 논리는 쾌락적 연애에 대한 처벌 및 종합적인 힘과 권위, 이성적인 현모양처 자질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여성젠더 서사에서, 연애는 '여성의 자유'에 대한 모색과 낭만적 사랑과의 연관을 드러내었다. 낭만적 사랑의 동경 및 좌절을 다루고 있으며, 이 점이 남성젠더 시선의 연애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1960년대 소설은 이제 여성의 남성 취향 및 감각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하는데, 전병순의 『안개부인』과 정연희의 『석녀』는 이러한 내포와 외연을 확장시켰다. 특히 『석녀』는 애정불임증의 자기형벌적 연애를 제시하며, 존재의 확인 및 구원의 주체 역시 자신으로 설정하는 '자기구원'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었다.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은 하이틴의 발견과 군사주의 반공 계몽

의 상동성을 보여 주었다. 순결-순수-전통 개념이 군사주의 반공 계몽의 논리와 상동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근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유포하는 창구역할을 하였다. 이는 군사주의 반공 계몽이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여성젠더 시선의 서사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전병순과 정연희의 낭만적 사랑은 근대 가부장제에 길항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1960년대 여성작가에게 드리운 전반적인 부정적 혐의는 거두어져야 한다.

주제어

코나투스- 사회체계로서의 연애, 정착·소외·육체로서의 연애, 취향·구원·순결로서의 연애, 낭만적 사랑, 스와핑, 제처권, 군사주의, 반공 계몽, 재건 계몽, 『서울은 만원이다』, 김승옥, 『부부』, 『안개부인』, 『석녀』, 박계형

1. ‘코나투스 - 사회체계’로서의 연애

코나투스(conatus)란 ‘어떤 개체 안에 존재하는 자기 보존의 무의식적 의지 또는 욕망’이라 풀어쓸 수 있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각 사물은 자신의 존재 역량에 따라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코나투스 테제¹⁾에 토대해 있다. 코나투스 테제는 세 가지 입장에 기초해 있다. 첫째는 어떤 개체든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으며, 개체는 이성적 존재인 동시에 정념적 존재²⁾이다. 코나투스는 정념의 원천을 ‘지향 대상’에 두

1) 스피노자의 『윤리학』의 대명제이다. 알렉상드르 마트롱, 김문수·김은주 옮김,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그린비, 2008, 참조.

2) 여기서 정념이란 기쁨, 슬픔, 사랑, 미움과 같은 정서적 양태를 가리키는데, 기쁨이란 정신이 자기 코나투스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적 원인의 영향 하에서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할 때 느끼는 정념이다. 연애할 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란 이 기쁨의 정서를 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집중이라 할 수 있다.

는 전통적 정념론과 결별하는 것으로서, 정서론의 근대성을 보여³⁾준다. 둘째는 개체는 개인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공동체도 하나의 집합적 개체를 이룬다. 즉 집합적 개체로서의 공동체 안에도 코나투스가 작동하는데, 집합적 개체의 정념은 대중의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긴요하게 쓰일 수 있다. 셋째는 정념들이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제도를 통해 정향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이성은 정념들을 정향시키는 윤리적 이행의 핵심계기가 된다.⁴⁾

연애가 단순히 ‘사적 감정’ 또는 ‘사회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님은 이미 여러 논자에 의해 연구된 바,⁵⁾ 연애(사랑)는 개인적 관계인 동시에 사회체계와 연관된 정치적 관계에 해당한다.

코나투스 개념을 적용하면 ‘이성-감성 통합적 인간관’에 의거하여, 연애의 보편성 및 특수성, 연애의 사회체계⁶⁾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

3) 알렉상드르 마트롱, 김문수·김은주 옮김,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그린비, 2008, 11쪽.

4) 알렉상드르 마트롱, 김문수·김은주 옮김,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그린비, 2008, 11-12쪽.

5) 캐럴 페이트만,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후, 2001; 재크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참조. 살스비와 페이트만, 펠스키는 연애와 사회와의 연관성을 정치하게 분석해 보여주었는데, 이들에 의하면, 근대 초기의 연애는 남성과 여성의 ‘은폐된 성적 계약’이었다. 특히 페이트만은 전통사회의 가부장제가 어떻게 사회계약론이라는 근대적 사유 속에서 재구성되고 자본주의에서 더욱 공고화 되는가를 연구하면서, 가부장제가 사회계약론을 통해 근대적인 형태로서 생명력을 유지한 채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 하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복종을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는지 천착해 보여 주었다.

6) 여기서 사회체계의 개념은 하버마스가 아닌 루만의 개념을 원용하여 사용한다. 하버마스와 루만은 논쟁을 벌일만큼 체계와 관련한 이론적 차이를 갖고 있다. 하버마스는 사회 속에 체계(Systeme)와 생활세계(Lubenswelten)가 있다고 보는 반면, 루만은 사회들 자체가 체계이며, 그것들 안에서 결성되는 경제 정치 문화 종교 예술 나아가 사랑과 섹스 가족 등 다양한 분야가 사회체계 프로젝트의 대상이다. 하버마스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 사회가 지향할 합리

힐 수 있다. 기존의 연애 연구는 근대의 이성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전개되었다. 즉 연애가 ‘사적’ ‘감정’과 관련된 것이라 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성적 인간관에 기초해 있었다. 또 정념의 원천을 지향대상에 둠으로써 정념의 주체성을 배제하였다. 이는 자율적 인간관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논리적 모순이다. 또 기존의 연애 연구에서는 집합적 개체성을 긍정하지 않았다. 연애의 주체는 오직 ‘개인’이어서, 집합성과 관련된 연애의 ‘관습’, 연애의 ‘아비투스’를 특정 방향으로 정향하는 원인 등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소설에서, 남성젠더 시선의 소설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으나 여성젠더 시선의 소설에 광풍처럼, 아비투스 형태로 ‘낭만적 사랑’이 제시되는 이유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 서양식 연애와 동양식 연애, 동양에서도 한국식 연애와 일본식 연애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코나투스에 내포된 ‘집합성’을 전제했을 때만 가능한 설명 방식이다.

근대 초기의 연애가 자유주의 토대에서 개인 주체 형성과 연관된 사회체계 행위였다면, 1960년대의 연애는 어떤 것이었는가. 코나투스 - 사회체계로서의 연애는 근대 초기의 연애와 1960년대의 연애가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노정시킨다. 그것은 또 1950년대와도, 1970년대와도 다를 수밖에 없다.

코나투스 - 사회체계로서 연애는 1960년대의 계층적, 계급적, 민족적(또는 국가적), 젠더적 자기보존 욕망을 제시한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는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사정부가 수립-확장되는 시기이며, 근대 가부장제의 변형된 형태가 새롭게 전개되는 시기⁷⁾로서 1960년대의 연애는

성을 발견한다고 보면서 사회를 계몽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루만은 당대의 사회에 대한 이해 및 현재의 이해도 그 사회자체의 산물로 보면서, 사회란 재귀조직체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세한 것은 하버마스, 『의사소통의 합리성』, 1,2; 루만, 『사회체계이론 1, 2』, 한길사, 2007, 참조.

전과 다른 코나투스 - 사회체계를 드러낸다. 이 글은 이러한 1960년대 소설의 연애를 분석하여 전과 다른 1960년대의 코나투스-사회체계를 밝히고, 그 의미를 추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연애가 코나투스 - 사회체계로서 그와 관련된 권력관계 및 정념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재현과정에서 서사의 핵심 장치인 서술자의 ‘차이’(계층, 계급, 민족, 젠더), 주인공의 ‘차이’의 작동 여부도 함께 고찰하여야 한다. 소설은 화자를 통해 이야기되어지는 장르로서, 시선의 정치학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화자를 통해 ‘보는 방식’(way of seeing)이 소설 전체의 의미창출을 지배하고,⁸⁾ 보는 방식에 의해 형상이 규정되고, 세계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서사는 ‘보는 방식’과 관련한 계층, 계급, 민족, 젠더 등의 차이가 연관된 미학적 구축과정⁹⁾이며, 코나투스 - 사회체계로서 연애는 당대의 ‘보는 방식’ 및 개체의 정념들, 그리고 이를 지배하는 사회관계를 밝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1960년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고는 연애를 중심으로 1960년대의 보는 방식들, 정념들, 사회체계를 분석하여 이들의 작동방식 및 의미를 고찰하면서 연애가 사회체계로서 얽혀 있는 중층적 제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러 범주 중 본고에서는 1960년대 서사에서 ‘연애’와 관련하여 가장 큰 차이를 담지하며 ‘범주 우선성’¹⁰⁾을 제시하는 젠더 범주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연애는 젠더 연

7) 조혜정은 이 시기를 ‘모중심 사회’가 시작되는 시기라 보고 있다.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한국여성정치사회사』, 『한국여성문화사』, 2006, 참조.

8) 김복순, 「반공주의의 젠더 전유양상과 ‘젠더화된 읽기」, 『문학과 영상』, 2004 봄·여름호, 문학과 영상학회, 1장, 3장, 27-30쪽, 38-49쪽.

9) 자세한 것은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서론 참조.

10) ‘범주 중심성’ 및 ‘범주 우선성’에 관해서는 김복순, 「‘범주 우선성’의 문제와

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철되어 ‘재현의 성차’를 도출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젠더 차이는 상이한 서사를 산출하는 기본 기제가 된다.

2. ‘모색의 서사’에 나타난 연애전유의 젠더적 차이

1950년대의 소설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기록’인 ‘난민의 서사’였다면 1960년대의 소설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대적 상황을 제시한다. 1960년대 소설은 전후의 혼란상을 극복하려는 의지 하에 사회를 바라보는 거리두기의 자세를 취하면서 삶을 규정하는 조건들을 살피고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였다. 근대화가 진행되는 당대를 ‘불안’한 가운데 요모조모 따져 보고 삶을 규정하는 요인들을 살피면서 과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1960년대 소설의 미적 주체들은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전개되는 ‘불안’ 속에서 무언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모색을 꾀하고자 했던 ‘불안 속 모색’의 서사를 제시한다.¹¹⁾

1960년대의 연애는 이러한 ‘불안’한 주체가 무언가를 모색하는 지향 행위와 맞물려 있다. 그 지향행위는 젠더별, 계층별 범주와 연관되며 사회체계로 자리매김된다.

최정희의 식민지 시기 소설, 『상허학보』 제23집, 2008. 6.(예정) 참조.

11) 하정일은 1960년대 서사의 특징을 ‘성찰의 서사’로 명명하였지만, ‘성찰’은 이성적 반성 행위 속에서, 또 실천이 내포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1960년대 서사의 다른 특징인 ‘불안’과 결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960년대를 성찰의 서사라 명명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1960년대 서사에 ‘성찰성’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성찰의 서사라 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앤소니 기든스 등의 ‘성찰성’은 근대화가 훨씬 진척된 ‘위험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산업사회 단계인 1960년대에 이들의 성찰성 개념을 적용하여 ‘성찰의 서사’라 명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1960대는 하정일의 지적대로 아직 ‘실천’에 이르지 못하는 시기이다. 앤소니 기든스 외, 임현진 외 옮김, 『성찰적 근대화』, 한울, 1998;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196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1998, 13-43쪽.

1950년대는 비록 혼란 속에서도 나름대로 각종 사회재건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열정의 시기’였다. 서사에서도 이와 같은 측면은 그대로 반영되어서 1950년대 소설은 전후의 암울한 세태를 드러내는 한 권에서, 새 시대 재건이라는 나름대로의 ‘열정의 서사’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전후의 혼란상이 차츰 정돈되고 4·19라는 열정이 5·16으로 정리되면서 1960년대는 전후로부터 이어지는 시기를 돌아보는 일종의 ‘모색’을 제공한다. 연애의 문제도 전후 서구의 민주·자유 개념의 도입과 함께 성적 방종 및 불륜의 차원에서 벗어나 모종의 ‘성찰성’을 드러내며 불안한 가운데 새로운 모색을 펼치고 있었다.

1960년대 남성젠더 시선의 서사에서 연애의 키워드는 ‘정착, 소외, 육체’였으며, 이들 키워드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소설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김승옥의 단편들, 손창섭의 『부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1960년대 여성젠더 서사의 연애의 키워드는 ‘취향, 구원, 순결’이었으며, 이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소설로 전병순의 『안개부인』, 정연희의 『석녀』,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을 검토할 것이다.¹²⁾

12) 본고는 ‘연애소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소설에 그려진 ‘연애’를 다룬다. ‘코너투스·사회체계로서의 연애’ 개념에 입각할 때 ‘연애소설’에 한정할 경우 오히려 1960년대의 연애의 특징을 제대로 읽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 검토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1960년대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시기적으로는 1961년 5·16 이후에 발표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1960년에 발표된 작품은 ‘1960년대적’이라 하기 어렵다. 1960년대의 대표작가로 이호철과 김승옥, 최인훈을 거론하지만, 최인훈의 대표작인 『광장』이 1960년 작이라는 점에서 최인훈을 배제하였으며, 강신재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배제되었다. 「젊은 느티나무」는 1960년 작이다. 손창섭은 1950년대 작가이나 1960년대 들어 자신의 소설적 경향을 뒤집고 본격적인 대중소설 작가로 변모한다. 『부부』는 1960년대적 경향의 대표적 유형인 ‘육체’를 문제 삼는 선도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선택하였다. 여성작가로는 정연희에다 전병순을 추가하였으며, 박경리는 간접적 인용으로 제한하였다. 박경리의 1960년대 작품 중 대표작은 『시장과 전장』인데, 전쟁의 한 복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호철의 『소시』

2. 남성젠더¹³⁾ 시선의 연애전유 양상

: 남성 중심적 소시민성과 폭력·소외로서의 연애

1) 집합적 개체성과 ‘정착’의 매개로서의 연애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는 1966년 『동아일보』에 연재(1966.2.8-11.17)되어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¹⁴⁾ 소설이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서울로 서울로 상경하여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짹짹 차’ 있는 도시 서울은 인구 370만명의 온갖 악덕과 추잡, 광기와 허영의 집산지로 팽창하고 있었다. 경남 통영에서 상경한 여주인공 길녀가 식모살이를 거쳐 창녀로 전락해 가는 풍경을 한 축으로 하고, 길녀 주변의 남동표, 기상현, 서린동님 영감과 아들 범학도, 피부비뇨기과 의사, 복실엄마, 친구인 미경 등이 벌이는 ‘만원’ 도시 서울에서의 세태풍속을 한 축으로 하여 뜨내기들의 삶과 욕망의 문제를 풍자수법으로 그린 세태소설이다.

이 소설은 소위 3·8따라지라고 불리는 월남민과 상경한 시골출신들, 즉 뜨내기들의 집합적 개체성을 드러내며, ‘서민’으로 등장하기 시작¹⁵⁾

민』과 함께 제외되었다. 전병순의 소설은 서울지와 지방지에 동시에 연재되고 1970년대에도 재연재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있었다(최미진, 『한국 대중소설의 틈새와 심층』, 푸른사상, 2006, 80쪽). 여기에 1960년대의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의 ‘하이틴의 발견’을 다룬 박계형을 추가하였다. 본고에서 선택한 작품들은 신문 연재, 방송소설, 영화의 원작 소설, 단행본 등의 형태로 당대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작품들이다.

- 13) 여성젠더, 남성젠더로 분리하여 이론화 하는 이유는 섹스-젠더체계의 중첩성 여부 때문이다. 생물학적 남성의 경우에도 남성젠더와 여성젠더가 있을 수 있으며, 생물학적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젠더와 여성젠더가 있을 수 있다. 또 이 둘의 경계선 상에 있을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8호, 2007, 13쪽.
- 14) 이 소설이 연재될 때 대학가에는 여주인공 길녀의 이름을 딴 ‘길녀촌’이란 유행어까지 생겼다고 한다. 김병익, 「풍자된 현실의 치부」, 『한국대표문제작가전집』 1, 서음출판사, 1978, 531쪽.

하는 뜨내기들의 삶과 욕망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길녀가 이미 창녀가 된 시점에서 시작한다. 길녀는 집단적 창녀조직인 종3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¹⁶⁾이지만 그곳에 적을 두지 않고 소서문 등 개인 주택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적 창녀로서, 고정 단골손님 5-6명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사기꾼 남동표, 촌놈으로 불리는 기상현이 연애 대상이다. 기상현보다 인물로나 말씀씨로나 훨씬 나은 남동표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하지만 늘 사기행각으로 직장도 없이 떠도는 남동표와 결국 헤어지고 기상현과는 살림을 차릴지의 여부를 남겨 둔 채 소설은 종결된다.

이 소설에서 창녀는 지금의 창녀와 조금 다르게 형상화되어 있다. 창녀는 ‘상품이면서 동시에 판매자, 그리고 임금노동자의 전형’¹⁷⁾이지만 집단적 창녀조직에 몸담기 전의 길녀는 아직 임금노동자는 아니다. 길녀는 다른 남자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길녀 주변의 남자들도 길녀를 자신과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자로 판단한다. 실제로 서린동님 영감은 나이 육십이 다 되긴 하였지만, 길녀와 살림을 차릴 욕심에 실제로 길녀를 첩으로 들어 앓힌다. 남동표와 기상현도 길녀를 아내 감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길녀가 다방에서 일하던 시절 ‘유독 길녀에게만 건네는 눈빛이 꽤나 유난스러웠던’ 기상현은 폭력적으로 길녀를 범한다. 길녀가 말없이 떠난 후에도 길녀를 그리워하며, 그는 일편단심으로, 길녀에게 책임을 느끼며 오매불망 길녀를 기다리고 있다. 기상현이 다방에서 폭력적으로 길녀를

-
- 15) 1950년대가 ‘시민의 등장’으로 일컬어질 수 있다면, 1960년대는 ‘서민의 등장’으로 일컬어질 수 있다. 시민의 등장과 관련하여서는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8호, 2007, 참조.
 - 16) 실제로 등장인물 중 하나인 미경은 길녀와 같이 개인적 창녀로 영업하다가 종3으로 이직한다.
 - 17) 수잔 벅 모스, 김정아 역,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2004, 240쪽.

범한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길녀를 취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기상현은 일을 치르자 엉기엉기 일어나며 엉뚱하게도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난 원래 이런 식으로 할라고 했등건 아닝기여. 그냥은 니가 안들어줄 것 같고, 니하고 꼭 살구 싶었등기여.”

기상현다운 사랑의 고백이었다.¹⁸⁾

…관계라야 국도극장 옆의 국화다방에서와 서린동 그방에서 단 두 번이 있을 뿐이었는데 이토록 길녀가 못 잊히는 것은 자기가 촌티를 못벗은 촌놈 탓이라고 여겨졌다. 그새 길녀가 거쳐간 다양한 사내행각도…그러나 그런 일은 여하간에 국화다방에서 처음 길녀를 다쳤을 때 길녀가 숫처녀였다는 것, 그리고 요즘 서울 거리에서 숫처녀가 흔하지 않다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는데, 어쩔거나 자기는 숫처녀에게 걸려들었으니 다행은 다행이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거꾸거꾸 자랑삼아 떠올리는 하였고……길녀를 만나서 살림을 차려야 새마음 새기분으로 새생활에 나설 것 같았다. (294쪽)

여기서 기상현의 연애감정은 세 가지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비록 창녀이지만 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 국화다방에서 자기에 게 당할 때 길녀가 숫처녀였다는 점, 자신이 촌놈이라는 점이다.

기상현의 연애는 폭력적으로라도 소유하는 것이며, 순결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폭력적 소유는 길녀를 타자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점은 김승옥의 소설이 보여주는 폭력적 소유와 기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다음 장에서 살필 김승옥의 연애도

18)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이호철전집』 7, 청계, 1991, 25쪽. 이하 작품인용은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폭력적 소유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몰화·소외로서의 연애를 보여준다면, 이 소설은 여성을 타자화시키지 않는다. 일을 치른 후의 기상현의 울음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뜨내기들의 집합적 개체성을 확인시킨다. 길녀를 그토록 잊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숫처녀라는 순결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촌놈의 순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창녀이지만 길녀 역시 첫 정조를 빼앗은 ‘기가를 받아들여야 하능기라’(15쪽)고 여러 차례 되뇌다. 서울 사람과 대비되는¹⁹⁾ 뜨내기들의 양상은 이 소설 전편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데, 연애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상현의 이와 같은 감정은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된다.

뜨내기들의 집합적 개체성은 이 소설 곳곳에 배치된 ‘눈물’과 서로를 ‘다 불쌍’하다고 보는 부분, 뜨내기들의 서울살이의 쓸쓸함에서 확인된다.

서울의 인간사. 서울에 사람은 만원이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모두가 쓸쓸한 사람이었다. 사람 사이의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런 거였다. 피차에 이렇다 하게 연줄을 느낄 만한 근거도 없고 심각하게 연대감을 느낄 만한 끈터귀도 없었다.

저저금 저너름으로 살아가다가 우연히 부딪쳐서 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비슷하고 그래서 잠시 인정을 나누고 서로 동정해주고 딱하게 여겨주고 어진간히 친숙한투를 부리다가도, 어느 고비에 가서 헤어질 때가 되면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너무나 허망하게 헤어지는 것이다.(176-7쪽)

19) 서울/시골의 대비는 여러군데에서 제시된다. 서울은 썩썩이관(101쪽), 서울사람들은 미친사람들(22쪽)이며, 시골은 순수 순정, 진지함 등으로 상징화 된다. 105쪽, 107쪽, 132-3쪽 등 곳곳에서 확인된다.

뜨내기들의 이 쓸쓸함은 리스만이 말한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도시화, 산업화에 동화되기 전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쓸쓸함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울 사람과 다른 지(知),²⁰⁾ 다른 코나투스를 갖고 있다. 이미 도시화에 적응하여 짝새게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소지식인들을 경멸하면서, 자신들이 그들보다 ‘백배 천배 선남선녀에 속하는 편’이라고 본다. 그래서 허황하고 부평초 같은 자신들에 대해서는 서로 모두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서소문집 주변의 사람들과 서린동집 주변, 길너 친구 미경 등은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119쪽)이고 그들이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울음을 터트린다.²¹⁾ 특히 소설 중반 이후 붓물처럼 등장하는 이들의 눈물은 ‘무언가 본질적으로 흐느’끼는(288쪽) 정념으로서 뜨내기들의 집합적 개체성에 대한 동정의 윤리를 산출한다.

동정²²⁾의 윤리와 그것을 이끌어 주는 눈물은 이 소설이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그늘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애환에 매우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알려 주는 동시에 그 극복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확인시킨다. 따라서 이때의 눈물은 ‘감상성’을 담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한 뜨내기들의 사회성 및 역사성을 확인시킨다.²³⁾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남성의 감수성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²⁴⁾으로서 ‘눈물의 젠더화’가

20) 芝原宏治 외, 『都市と 故郷の フィクション』, 清文堂, 2007, 참조.

21) 특히 중반 이후부터 ‘눈물’과 ‘불쌍하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빈번히 등장한다. 120쪽, 177쪽, 180쪽, 192쪽, 210쪽, 273쪽, 275-6쪽, 287-8쪽, 294쪽 등.

22) 동정은 공감, 동감, 일체감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동정에 대해서는 막스 셸러, 이을상 옮김, 『동정의 본질과 형식』, 울산대 출판부, 2002, 참조.

23) 눈물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사회성·역사성을 담지하고 있음은 안 배상 뷔포, 이자경 옮김, 『눈물의 역사』, 동문선, 2000, 참조.

이루어졌는데, 이 소설에서는 기상현을 비롯하여 남동표, 서린동집 영감과 법학도 등 거의 모든 남자들이 눈물을 보인다. 이는 이 소설의 코나투스가 ‘뜨내기들의 감수성’(계층)에 입각해 있다는 반증이다.

연애는 이러한 동정의 윤리가 가장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로 극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원』에서 연애는 낭만적 사랑이 아니다. 욕망에서 사랑으로 이행하는 연애를 보여준다. 뜨내기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마치 우애같은 사랑이다. 『만원』의 연애는 ‘살림을 차리는 것’으로서, ‘정착의 매개로서의 연애’를 보여준다. 기상현도 남동표도 ‘살림을 차리고’ 싶어한다. 길너도 기상현에게 당한 후 ‘호박씨 냄새같은’ ‘촌스런 냄새가 있어 고향을 일깨워’ 준다면서 ‘이 사람과 살림을 차려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정착의 매개로서의 연애는 뜨내기들의 집합적 개체성을 확인시켜 준다. 뜨내기들의 연애는 중상층의 낭만적 사랑과 다르다. 정착의 매개로 작동한다. 정착의 매개로서의 연애는 불쌍함, 눈물, 동정 등의 코나투스와 함께 집합적 개체성의 정념을 확인시킨다. 더구나 풍자적인 날카로운 시선을 지녔으면서도 뜨내기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범주 우선성’은 계층과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뜻한 애정의 남성젠더적 시선²⁵⁾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 및 극복의 의미까지 부각시킨다. 하지만 아직 저항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채 뜨내기의 삶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비판 및 극복은 열정이 배제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과 상통한다. 서린동집 법학도의 ‘사랑의 영웅담’이 오직 열정적인 연애의 형

24) 안 배상 뷔포, 이자경 옮김, 『눈물의 역사』, 동문선, 2000, 12쪽.

25) 서술자는 다양한 시점 사이를 이동하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시점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 또한 따뜻한 애정의 시선을 유지하고 뜨내기 모두에게 골고루 자신의 주석적 해석을 붙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태로 제시될 뿐 나머지의 연애는 열정적으로 형상화되지 않고 담담하게 제시되어 있다. 법학도의 연애도 파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선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다. 뜨내기들의 신산스런 삶과 연애는 집합적 개체성과 연관된 우애에 바탕한 동정의 윤리에 기대고 있으며, 열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열정을 배제한 것도 아니었다. 이것이 열정의 배제로 제시되는 두 번째 계열의 김승옥 등의 소설류와 다른 점이다.

정착의 매개로서의 연애, 열정의 유지, 눈물과 동정의 윤리는 자본주의적 근대화 극복에 대한 낭만성,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낭만성을 확인시켜 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빌딩은 올라가지만 미경이는 죽어가는 덧없음 속에서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새 옷으로 단장한 길녀’(301쪽)가 다시 나타나리라는 희망은 바로 이 낭만성과 연결된다.

2) 분열된 개체성과 물화·소외로서의 연애

이호철의 소설이 근대화에 편입하기 전의 뜨내기 인간 군상들을 그리고 있다면, 김승옥의 소설은 정착할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정착의 가능성이 보인다거나 이미 정착하여 속물이 된 인간 군상들을 보여준다.

김승옥에게 ‘모색’은 ‘자기세계’로 명명된다. 1960년대 작가들의 ‘자기세계’ 구축은 하나의 종교적 열정과 같은 의미를 자아낸다. ‘자기세계’ 하면 김승옥만의 특허인 것처럼 지적되어 왔으나, 뒤에 다룰 손창섭의 『부부』도 ‘자기세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젠더 시선의 전병순의 『안개부인』²⁶⁾ 및 정연희의 소설에서도 ‘자기세계’라는 언명이 나온다. 물론 이들의 자기세계는 각각 내포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기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1960년대 서사가 ‘모색의 서사’임을 다시

26) 외국 유학자의 자기세계는 한상현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 소유자로서의 여성에게도 자기세계가 있음을 설파한다(하48쪽).

한 번 확인시킨다.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생명연습」에서부터 가장 ‘60년대적’이라 일컬어지는 「무진기행」에 이르기까지 ‘모색’의 ‘지향점’으로서의 ‘자기세계는’ 김승옥에게 중요한 소설적 화두였다. 김승옥 소설 전반에서 모색은 근대화의 전개과정에서 성공적인 삶인 ‘출세’와 연관되어 있다. 출세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고, 출세하기 위해 (비록 몸을 팔아서라도) 대학을 다니며, 출세하기 위해 돈 많은 과부와 결혼한다. 따라서 출세행위는 인격적 상실과 배반, 회의, 소외를 동반하며 주인공들에게 심각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한다.

김승옥의 자기세계는 분열된 개체성 및 물화·소외, 폭력적 연애와 맞닿아 있다. 1960년대의 내면성을 창출하는 기제로서 자기세계는 ‘산업화 시대의 개인’의 의미를 묻고 있다. 근대 초기소설의 내면성이 초월적 세계로부터 하강하여 내면을 가진 개인 주체가 되는 것, 즉 스스로 큰 타자가 되는 것이었다면, 1960년대 소설의 내면성은 1950년대의 한국전쟁 이후 ‘큰 타자의 응시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는 주체’²⁷⁾이다.

이러한 주체는 반성적 자기성찰, 회의, 불안 등의 코나투스²⁸⁾로 분열된 개체성을 확인시킨다. 분열된 개체성의 코나투스는 김승옥의 소설에서 번뜩이는 철편, 눈뜰 수 없는 현기증, 끈덕진 살의, 암울을 쥐어짜는 회오와 사랑²⁹⁾, 어둠과 음란의 냄새³⁰⁾로 나타나며, 폭력적 연애 및 열정이 배제된 사랑의 형태로 제시된다.

김승옥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부정한다.’³⁰⁾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을 느끼지만 믿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폭력적

27) 김영찬, 「불안한 주체와 근대」, 『상허학보』, 12집, 39-65쪽 참조.

28) 김승옥, 「생명연습」, 『김승옥 소설전집』 1, 문학동네, 1995, 2004, 35쪽.

29) 김승옥, 「건」, 『김승옥 소설전집』 1, 76쪽.

30) 김승옥, 「환상수첩」, 『김승옥 소설전집』 2, 문학동네, 1995, 71쪽.

남성성으로, 여성성의 소외로 제시되며, 여성을 타자화 대상화 한다. 하지만 타자화 한 후 반성적 성찰을 포기하지 않고³¹⁾ 있다는 점에서 여성성의 타자화에 균열을 드러낸다.

「생명연습」의 첫 장면에 제시되는 문둥병 환자처럼 눈썹을 짝 밀어버린 학생으로부터 생식기를 잘라버린 전도사, 여자를 정복하는 천재성을 지닌 영수, ‘가장 사랑’하고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출세길에 방해되기 때문에 잊어버리려 정복하고 배반하는 한교수,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자와 관계를 가진 어머니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맏아들은 자기 세계의 외연과 내포를 장식하는 사례들인 동시에 김승옥의 연애전유 양상을 보여 준다.

눈썹을 밀어 자기세계를 확보하려는 대학생은 자해적인 기괴함을 드러낸다. 마치 문둥병 환자와 같은 모습을 함으로써 그것은 자기세계의 ‘개성’보다 ‘병리성’을 드러낸다. 그 대학생은 그것이 1960년대의 ‘유행’이라고 함으로써 병리성이 당대 사회에 이미 만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이 소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교수의 자기세계는 유학 전의 연애와 연관되어 있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한 교수는 애인 정순이 계획을 포기하고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자 정순의 육체를 범한다. ‘가슴이 타도록 사랑’하였지만, ‘오직 하나 분명한 것은 나는 정순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뿐’이었지만, 정순을 두고 갈 수 없다면 잇는 방법으로 육체를 범하는 폭력을 휘두른다. 그 결과 ‘사랑은 식어질 수 있었고, 마카오 경유 배표를 쥐고도 손가락 하나 떨지 않고 떠날 수 있었다. 한 교수의

31) 뒤에서 살펴겠지만, 「생명연습」에서 형의 살해 모의가 나와 누이에 의해 부정된다는 점, 한 교수가 나에게 반성적 고백을 한다는 점,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에서 ‘나’가 누이에게 동적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 등은 김승옥 소설이 ‘철저히’ 여성성의 타자화에 균열을 내는 부분이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군사주의의 젠더 전유 양상과 여성 만보객」, 『대중서사연구』, 제12집, 2004.12. 참조.

연애는 폭력을 동반한 소외로서의 연애를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소설의 다른 한 축인 나의 과거 이야기는 어머니의 남자관계를 둘러싼 형의 음모와 그에 대항하는 나와 누나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머니가 다른 사내를 세 번이나 끌어들이자 형은 어머니 살해를 모의한다. 하지만 누나의 이해방식에서는 그 사나이들은 모두 아버지를 닮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어머니의 사내 행각은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형은 어머니를 때리는 패악을 일삼으며 살해 모의를 시행한다. 이 살해모의는 나와 누나가 오히려 형을 살해함으로써 부정되지만, 어머니에 대한 ‘차가운 오해’ 속에서 형의 어머니 살해 모의는 어머니의 연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체된 가부장’의 폭력에 기인한다. 같은 여성인 누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대체된 가부장(형)은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 교수의 자기세계가 폭력적 연애, 소외로서의 연애를 보여준다면, 형의 자기세계는 대체된 가부장의 폭력을 제시한다. 둘 다 분열된 개체성으로서 물화되고 소외된 형태의 자기세계였다.

「환상수첩」에서도 정우는 사랑하는 애인 선애를 친구에게 아무 생각 없이 유희하듯이 넘긴다. 서로 애인을 바꾸어 놀자면서 바꾼 애인이 선애보다 못하면 벌을 받기로 한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창녀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된 선애이지만 여러 차례 만나 연애하면서 사랑을 느낀 것도 사실이었다. 정우는 사랑을 ‘느끼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일과성의 연애, 무책임한 연애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수영의 동생 진영이 깡패들에게 납치되어 윤간을 당하는 것도 여성을 정복의 대상, 쾌락의 대상, 소외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좋은 사례이다.

이런 양상은 「건」, 「무진기행」,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에서도 제시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유희 누나를 윤간하고자 하는 형들의 모의에

가담하여 배신하는「건」, 서울에 가 있는 2년 동안 남자에게 강간당하고 아이를 임신해 낳은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누나가 합승 정거장의 사내에게 강간당하는「염소는 힘이 세다」 등에서 여성은 남성들의 성욕의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강간 당한다.

「무진기행」에서도 윤희중과 하인숙의 연애는 윤희중의 시각적 헤게모니 속에서 ‘빼앗는 것’으로 처리된다. 윤희중은 ‘뺨 좋고 돈 많은 과부’를 얻어 출세한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소시민의 전형이다. 무진으로의 여행도 전무가 되는 작업을 앞두고 잠시 쉬러 다녀오게 되었다. 음악교사 하인숙은 윤희중을 서울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적 필요를 느낀다. 하인숙의 ‘사회적 필요’를 윤희중은 ‘성적 필요’로 ‘멋대로’ 인식하면서 그녀의 성을 빼앗는다. 여기서도 윤희중의 연애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며, ‘그녀는 처녀가 아니었다’는 확인으로 성적 관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면제’시킨다.³²⁾

강간은 여성에게 ‘동의되지 않은 성’으로서 타자화를 드러낸다. 강간이 이렇게 거의 모든 소설에 제시되는 것은 남성젠더 시선의 서술자들이 사랑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체가 악’인 근대화의 도시 서울이 폭력성을 띠며 사랑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김승옥의 소설에서 연애는 주인공들의 ‘구멍이 뚫린 삶’³³⁾에 분열된 개체로서의 개인이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김승옥의 연애는 근대화라는 폭력

적 남성성을 환유하는 매개로서, 분열된 개체가 폭력적 근대화에 길항하는 방법이다. 근대화의 과정이 지닌 폭력성은 고향/도시를 이분법적으로 제시하면서 선/악, 감각/차디찬 이성, 만족/ 불만(허영), 황혼과 해풍/할퀴고 빨아먹고 찢기, 영원한 토대/ 상처와 상처의 씨앗³⁴⁾의 대립에서 후자의 세계로 상징된다. ‘모색’을 구하지만 그 구체적 방법을 획득하지 못한 분열된 개체들은 근대화의 폭력성을 여성을 강간하고 배반하는 연애전유 방식으로 여성에게 전가하면서, 자기세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여성은 근대화의 이중 타자화 대상이 된다.

이호철의 소설이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모색의 서사를 보여준다면, 김승옥의 서사는 살아내지 못하고 자살·배반·강간함으로서 모색의 실패 또는 모색의 좌절을 보여주는 폭력적 남성성의 서사를 제시한다.

3) 쾌락으로서의 연애에 대한 군사주의 재건 계몽의 처벌

손창섭의 『부부』는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이미 정착하여 ‘육체’를 음미하게 된 소시민을 보여 준다. 육체는 196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인식의 창에 잡히기 시작하는데,³⁵⁾ 이때의 육체는 관능성 및 쾌락성과 모두 관련되어 있다. 『부부』는 1962년 『동아일보』에 연재(1962. 7 - 11)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소설로서, 한국소설사에서 처음으로, 아내의 몸에 대한 예찬과 몸에 대한 쾌락으로서의 연애를 제시한다. 부부 사이에 연애 감정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소설은 부부간의 성적인 ‘미묘한 부조화’에 대한 타개책으로 스와핑을 제시하

32) 김복순, 「남성/여성 만보의 담론화 과정과 감각적 인식」,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앞의 책, 473-503쪽 참조. 「무진기행」을 하인숙의 시선으로 ‘젠더화된 읽기’를 할 경우,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하인숙은 처음에는 서울이라는 중심부에 편입되고자 욕망하는 주변부 타자였으나 윤희중의 속물성을 성찰하고, 의식의 자기 충족적 존재가 되는 여성의 주체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즉 ‘일주일만 멋진 연애를 하’는 것으로 끝맺으며, 윤희중과의 사랑을 스스로 포기한다.

33) 김승옥, 「환상수첩」, 『김승옥 소설전집』 2, 문학동네, 1995, 18쪽, 25쪽

34)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김승옥 소설전집』 2, 문학동네, 1995, 114-139쪽.

35) 이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육체의 문」 등 1960년대 영화에서 ‘육체’는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다.

고, 실추된 남성성에 대한 회복 및 제치권(制妻權)의 확립 문제,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관련된 ‘절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모’ ‘국가 사회를 위한 보건계몽봉사’ 등과 관련된 1960년대의 재건 계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문제적이다.

남편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 ‘나’의 연애 개념은 상당히 개성적이다. ‘부부생활이란 결국 정신적인 애정과 육체적인 애무가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균형을 잡아 나가는데 원만한 부부생활의 기초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으며, 아내의 육체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육감적이지요 고풍적이지요, 선정적이기조차 한 미묘한 타입’(39쪽)³⁶⁾이라고 느끼며 ‘도취한 듯 반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해 아내는 ‘부부간의 애정이란 따지고 보면 종족 보존의 목적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이상 향락 행위로 흐르는 건 죄악예요. 여기에 자연 고등동물로서의 엄격한 자제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절제를 보른다면 그건 한 쌍의 개나 돼지지 부부는 아녜요.’(36쪽)라고 말하는 정신적 이상주의자이다. 따라서 남편을 ‘표본적인 호색한’, ‘변태적인 치한’으로 규정한다.

2대에 걸쳐 교육가 집안인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내 서정숙은 지나치게 청교도적인 금욕주의자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남편의 육체적인 요구는 불순하고 불결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혼 전 강제로 육체적 관계를 갖고 나서 마치 괴한에게 능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침식을 끊고 파혼 고소를 언급했던 아내는 이후 청교도적인 이상주의와 결백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이 소설은 우선 연애를 청춘 남녀의 것으로만 전유하지 않는다. 그간

36) 손창섭, 『부부』, 『손창섭 대표작전집』 2, 예문관, 1970, 이하 인용은 해당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사랑’은 모든 연령 계층에게 그 가능성이 인지되어 왔다면, ‘연애’는 청춘 남녀의 것으로만 전유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가부장제-일부 일처제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서, 기혼남녀의 연애는 ‘불륜’으로 매도되었다.

이 소설은 남성작가의 소설로는 처음으로 이러한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청춘 남녀의 연애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귀여운 것으로 묘사하는 반면, 기혼 남녀의 연애는 줄곧 ‘징그럽다, 구역질’(184쪽)난다는 시선을 교정하고자 한다. 실제로 일부일처제는 근대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기본 골격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기혼 남녀에게도 새로운 대상과의 연애 감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모든 사랑에 불륜은 없다.’³⁷⁾ 연애 감정 또는 사랑의 감정은 인간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특정 계층, 특정 계급, 특정 연령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근대 가부장제 및 근대 법 체계는 특정 계층, 계급, 일부 연령대에만 그것을 허용하였다. 기혼 남녀의 연애를 불륜으로 매도하는 것은 근대 가부장제의 자기보존 욕망, 즉 근대 가부장제의 코나투스로서, 근대 가부장제의 연애전유 방식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혼자의 연애는 사회체계의 억압적 측면을 환기시키며 그를 거부하는 장치로 읽을 수 있다. 기혼 남녀의 연애를 인정하면 기존의 낭만적 사랑에 관한 이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부부』는 또한 부부간의 성적인 ‘미묘한 부조화’의 해결책으로 스와핑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히 혁신적이다. 한국소설사에서 스와핑이 제시된 것은 이 소설이 처음으로 보인다. 물론 「테카메론」에도 스와핑 이야기가 나오지만, 근대 가부장제의 정착 이후 스와핑이 부부 간

37) 마광수의 문화평론집 제목이다. 마광수, 『모든 사랑에 불륜은 없다』, 에이원북스, 2008. 이 평론집에서의 ‘사랑’ 개념은 섹스로서의 사랑이며, 사랑의 주체를 남성으로만 설정하고, 여성은 대상화 타자화 되어 있는 등 철저히 남성 중심적 시각에 입각해 있다.

의 성적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소설은 당시까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와핑은 일부일처제라는 결혼제도를 부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합법적으로 연애하는 것을 말한다. 남편과 아내의 상호 동의 아래 부부 교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기존의 스와핑에 관한 인식은 성적 쾌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 소설에서의 스와핑은 성적인 갈등 문제 외에, 성격, 가치관의 차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건전하다. 스와핑이 당사자들 부부에 의해 제안되기도 하지만 여주인공의 동생인 서정숙을 통해 제시된다는 점, ‘나’와 ‘은영’의 일종의 교환행위가 은영의 이혼 후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대 가부장제 거부의 논리는 한층 약화되어 있다.

한편 아내 서인숙의 청교도적인 금욕주의는 군사주의의 재건 계몽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인숙은 ‘국가 민족의 보다 더 큰 이익에 직결되는 일에 자신의 전 인격적 역량, 생명까지도 걸고 분투하는 그 숭고한 인간적인, 정신적인 자세가 부러’(64쪽)울 뿐이라고 말하면서, 이성관계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이성관계로 해서 소모되는 인간의 엄청난 에너지를 양에 놀랐어요. 전 그 이상 그런 무의미한 에너지를 낭비를 지속할 수 없어요. 전 제 정력과 정열의 전부를 봉사회 사업에만 붙여 넣고 싶고…(38)

라고 말한다. 이후 서인숙은 봉사회의 총무에서 회장으로 승격되고 한덕

38) 『부부』, 앞의 책, 247쪽.

만 박사와 시골 벽지 등을 순회하며 ‘재건 국민운동’을 벌인다. 그 운동은 단지 의료 봉사 행위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의 개선 문제’에까지 확대되며, 두 사람은 시골에서 계몽 선전가의 위치를 분명하게 자리매김 받는다. 여기서 ‘나’ 부부의 ‘미묘한 부조화’의 갈등은 부부 간의 사랑 문제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아가페적 사랑의 의미를 획득한다. 한박사와 서인숙은 ‘불행한 많은 동포를 애인처럼 사랑’(212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등장인물의 욕망에 충실하게 종결되지는 않는다. 서인숙은 재건 국민운동의 훌륭한 수행자이지만 사랑하는 한덕만 원장과 맺어질 수 없으며, 한덕만 원장과 이혼한 은영 여사는 더더욱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특히 여성들은 성적 욕망의 실천자여서는 안 되는데, 이상적인 현모양처적 특징을 지닌 서정숙만이 사랑의 쟁취자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아내 서인숙은 남편의 육체적 쾌락에 대한 경멸 및 남성성 상실에 대한 책임으로 재건 계몽 운동 영역 외에서는 처벌받는다. 육체적 쾌락을 탐한 ‘나’의 친구 권군도 죽음으로 처벌받으며, 주인공인 ‘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내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이라 지칭되면서 직장에서도 쫓겨난다. ‘나’는 결국 아내 서인숙의 부하로 봉사회의 방계 사업체에 취직하게 되는 처벌을 받는다.

주인공 ‘나’의 남성젠더적 시선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우선 여성의 육체적 매력을 여성성의 우선성으로 제시하면서 주부의 영역을 가정 내로 국한하고 주부의 노동을 감정 노동에 국한시킨다. 또한 상실한 남성성을 회복해야 하며, 제치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선의의 지배’와 ‘폭력에 의한 강압’을 구별한다(81쪽). 제치권을 장악하려면 애정, 인격, 지식, 교양, 그리고 경제력 등이 뭉쳐진 ‘종합적인 힘과 권위’가 있어야 한다. 이 종합적인 힘과 권위는 보건회의 한박사에게 모아진다. 한박사의 불륜은 마치 원경미에 대한 동정 차원에서 묘사되면서 한박사가

사랑한 것은 아남을 은연중 강조한다. 한박사는 사재를 모두 털어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인물로서 애정, 인격, 지식, 교양, 경제력의 총합으로, 모든 여자의 사랑을 받고, 또 불륜죄를 뒤집어쓰고도, 십여 년 연하의 서정숙과의 재혼에 성공한다.

서정숙은 이 소설에서 주위의 모든 인간관계를 조정하고 협상하는 협상자, 이해자, 조정자로 형상화 되어 있다. 그녀는 사랑에 빠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남성연구’³⁹⁾를 하는 현모양처적 자질을 가진 여성으로 등장한다. 은영 여사나 형부의 육욕적 사랑도 이해하며, 언니의 도덕적 이상주의도 이해한다. 양 극단의 부조화를 조화와 균형으로 이끌고자 부단히 협상에 나서며, 남성들의 여러 속성을 이해하고자 남성연구를 치밀하게 전개한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권군과 원경미의 자살사건으로 한박사가 곤경에 처하자 그를 구원하며, 그의 약혼녀가 됨으로써 이 소설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소설은 1960년대의 신여성으로 낭만적 사랑에 연연하지 않는 ‘이성적인’ 현모양처 자질의 서정숙을 천거하는 것이다.

이로써 군사주의의 재건 계몽의 논리는 쾌락적 연애에 대한 처벌 및 그 대안으로서 국가·민족을 위한 아가페적 사랑과 종합적인 힘과 권위, 그리고 낭만적 사랑에 연연하지 않는 이성적인 현모양처 자질의 승리로 귀결된다.

39) 전후의 젠더재편과 관련하여 당대 잡지들은 ‘남성 특집’을 계속 기획하여 제공하였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8호, 2007, 참조.

2. 여성젠더 시선의 연애전유 양상

: ‘여성의 자유’에 대한 모색과 낭만적 사랑과의 연관

1) 취향·기호로서의 연애와 자유의 남녀 비대칭성

1960년대는 여성작가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여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 중 하나였다. 1930년대가 그 한 예에, 1990년대가 또 다른 예에 해당된다면 1960년대는 1930년대의 ‘여류’의 의미를 재검토하는, 일종의 새로운 여류의 기원⁴⁰⁾으로 자리잡는다. 이들은 대부분 중상 계층에 속하였는데,⁴¹⁾ 이러한 ‘계층’ 범주는 이들 문학의 한 특징을 형성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전병순의 『안개부인』⁴²⁾은 ‘여성의 자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한동안 보파르의 『제2의 성』을 숙독하였다. 나의 오랜 여성적 자학은 이때부터 눈을 뜨고, 이론적 체계를 갖춘, 여성과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⁴³⁾

여성도 자연인으로서의 자유로운 감정의 창달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⁴⁴⁾

남성지배 사회에서 여성의 자유가 왜곡되어 있음은 이후 이어지는 「후기」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여성의 자유’는 1950년대 정비석의 『자

40)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인하대 박사논문, 2003, 참조.

41) 박정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상층에 속하였다.

42) 1968년부터 69년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다.

43) 전병순, 『안개부인』, 자유문학사, 1978, 「후기」.

44) 『안개부인』 연재의 말. 한원영, 『한국현대 신문연재소설연구』 상, 국학자료원, 1999, 211쪽에서 재인용.

유부인』을 비롯한 여러 소설에서 형상화 된 바, 남성젠더 시선에 기초하여 ‘방종’과 ‘탈선’ ‘문란’의 기표로 각인되었다. 이 소설은 ‘안개 속에 가려진 여성의 현실’을 여성젠더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1960년대적 여성의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읽게 한다.

이 소설은 여성의 자유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취향 및 선택, 그리고 바람 필 권리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선포한다. 1960년대 소설은 이제 여성의 남성 취향 및 감각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하는 바, 이는 1960년대 소설이 여성의 자유와 취향, ‘향유(여성적 쾌락)’, ‘가치의 상대성’(하23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1950년대에도 손소희의 『태양의 계곡』 등 여성의 자유를 언급한 소설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여성의 ‘선택’의 자유에 국한되어 있었지 여성의 ‘취향’ 및 ‘향유’의 자유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 정연희의 『석녀』와 마찬가지로 이 소설은 1950년대의 아프레 걸⁴⁵⁾의 결혼 후의 삶을 형상화 한 것으로, 그간의 소설사가 남자의 연애사⁴⁶⁾의 전개 및 변형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기혼여성의 취향으로서의 연애를 그린 이 소설은 새롭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이 소설에서 여성의 자유는 남성을 선택하는 취향과 남성 향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여성도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성적 자유의 동등성 선포, 그리고 성규범에 대한 이중기준의 부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자유 및 권리, 취향의 남녀 동등성을 주장한다.

여성의 남성 취향은 소설의 서두에서부터 언급된다. 여성에게도 컷눈

45) 아프레 걸에 대해서는 김은하, 「전후 여성 잡지와 아프레 걸 담론」, 『여성문학연구』 제14호, 2006; 김현주, 「아프레 걸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1집, 2006.12;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 걸」, 『대중서사연구』 제18집, 2007.12, 참조.

46) 小谷野敦, 『‘男の戀’の文學史』, 朝日新聞社, 1997.

에 끌리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 좋은 남자와 싫은 남자, 유난히 호감을 주며 부딪쳐 오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가 있으며, 여성도 감성적·직관적으로 남성에 대해 느끼고 향유하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실제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세 남자는 여주인공 정우에게 비교대상으로 떠오른다. 남편 세찬은 ‘공생원’인 ‘가장’이며 ‘직업인’으로 ‘정확한 상식인’이다. 마치 아버지나 큰 오빠와 같이(하274쪽) ‘보호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 의대 출신의 외과의사로서 지방 출신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식들만은 서울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모두 서울에 유학시킨다. 김세찬은 「무진기행」의 윤희중만큼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편입되고자 바둥거리는 속물이다.

새로 개편된다는 학군제 때문에 어른들의 삶은 모두 ‘아이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다. 핵가족임에도 부부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생활의 모든 면이 조정되어 있다.⁴⁷⁾ ‘애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어른들이 매이고 끌려 다닌 건 말도 안되는 소리’(상280쪽)라고 항변하면서도 아내 정우는 남편 세찬의 교육관에 잠정적으로 동의한 상태이다. 세찬의 이러한 교육관은 교육이 아이의 성공과 미래를 보장한다는 ‘교육 구국’ 한국의 자본주의적 근대화 논리와 상동구조이다. 세찬의 근대화 논리는 ‘아무데를 가셔도 제 가족 이외에는 관심이 없’(하14쪽)을 정도로 가족주의를 확인시키는데, 교육-가족 이기주의-근대화의 연결고리는 이 소설의 코나투스⁴⁸⁾의 한 축을 형성하는 핵심기제이다.

남편은 병원에 매여 있는 반면, 아내는 한 달에 보름씩 서울과 지방을 왕래하며 자연 외부에 노출될 기회를 갖게 된다. 작가의 말대로 ‘자연발생적’인 연애의 ‘기회’가 제공되어 있다. 정우와 세찬부부는 일상생활

47) 이는 1960년대의 공교육에 대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한다.

공간의 성역할이 뒤바뀌어, 병원은 세찬에게 집안에 묶여 있어야 하는 가정내적 위치를 부여하고, 한 달에 보름씩 서울 간을 내왕해야 하는 정우는 오히려 남성의 성역할에 해당하는 가정 외적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즉 아내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하게 만드는 여건이 일차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연관된 근대화 논리에 있다. 이는 탈선 및 방종이 여성 자신의 탓(여성들이 자유를 잘못 해석한 탓)이라 규정하는 남성젠더 시선의 소설과 전혀 다른 시각이다.

귀향열차 안에서 ‘처음 보는 순간 전율을 느끼게 한’(하48쪽) 남자는 한상현이다.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서양 여자와의 연애했던 열정적인 남자로서 서구경험에서 오는 진보적인 구석과 지적 세련미를 갖추고 있다. 서양여자들은 생활의 ‘향락’을 찾으려 살고 있으므로 한국 여자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남편과 달리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이미 성공적으로 진입해 있는 남자로서 향후 극동제철이란 대기업의 후계자로 촉망받으며 그의 딸과 이미 소개로 결혼해 있는(연애결혼이 아닌) 상태이다. 자기 남편은 아내를 생물학적 대상으로서의 몸으로 대하는데 반해 그는 육체적 쾌락을 중요시 한다. 한상현은 남녀가 인생관 및 생활목표가 서로 맞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아내와 이혼한 후 정우와 재혼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동창생인 박영호는 건강·돈·야심 모두 만만치 않은 남자로서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상징처럼 마소처럼 건강하고 여유없이 달려 온 남자이다. 일과 여자를 자신의 성공의 잣대로 삼는 전형적인 인물로서 박영호의 연애는 육체적 정복에 있다. 정복의 숫자만큼 자신의 ‘사회적 능력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며, 한번 정복하고 난 후의 여자는 버리는, 전형적인 플레이보이 기질의 남자이다. 그런 만큼 여자와의 관계에서 세련성을 보인다.

이 세 남자를 비교하면서 정우는 남성들의 다양성 및 차이를 보게 되

고 자신과 잘 맞는 지 재어 보게 된다. 또 외도를 통해 느끼게 된 ‘은밀한 기쁨’, ‘감각이 전혀 색다른 테크닉’이 주는 ‘희한한 만족감’ 등의 코나투스(남편과의 차이와 함께 ‘향유’의 의미를 제공한다. 남편은 의사답게 여체를 하나의 생물체로밖에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한상현은 ‘여자의 육체를 존대할 줄 아는’ 남자였다. 이 차이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완전하게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육체적 쾌락을 향유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편 정우의 외도는 자신의 내적 욕망과도 관련되어 있다. 정우는 가정에 매여 있는 것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남편의 성적 욕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돈 때문이라고, ‘치사하고 창피하다’고 인식한다.

제 학문의 세계를 따로 가진 여성의 매력이라는 걸 상현씨는 복에 겨워 모르시는군요. 난 이따금 내가 정말 무위도식하는 밤벌레 같은 인간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비관될 때가 있어요. (상190쪽)

원래 나는 이렇게 가정에만 파묻혀 무능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여자라도 뭐든지 학문을 하나쯤 지니고 싶었어요. 하다못해 문학이든지 미술이든지 기악같은 거라도 말이죠. 시국 때문에 대학도 중퇴해 버리고 별수없이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고 하릴없는 세월만 이렇게 흘러 보내니, 정말 마음이 공허해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51쪽)

한상현에게 ‘자기세계’를 가진 여성의 매력과 능력을 부러워한다. 자신에게는 자기세계가 없으며, 사랑하지 않음에도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남편과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창부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가부장제의 성립과 연애결혼의 연관에서 남성과 여성이 은폐된 계약관계를 맺는다고 본 페이트만 지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정우의 결혼이 낭만적 사랑의 성취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적 내조나 사회적 내조가 필요 없’(129)는 중상층 여성으로서, 치사하지만 자신의 무능이 결부되어 있어 남편의 외도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여성의 자유는 홀로 존재하는 ‘형식’이 아니라 경제력을 포함한 자신의 능력 및 존재가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무능한 경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남편의 외도라는 성규범적 일탈에 여성의 성적 자유를 연관시켜 자신도 똑같이 외도를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중적 성규범을 그대로 확인시킨다.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머머. 당신이야말로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약속한 건 까맣게 잊으셨나 보군요.」

「약속이나 뭐나 그건 말이 안 돼. 여자가 되어 가지고 바람이란 말이 어디 있어? 한번만 그렇게 되면 아주 헤어질 각오하고 해야지.」

「기가 막혀……꼭 북괴대표가 판문점에서 쓰는 어거지 같군요.」

「남편이 한번 쫓 그랬대서……더구나 깨끗이 고백까지 했는데 뒷다릴 잡는 사람같이 경우가 틀렸단 말이야.」

「몰라요. 난 약속대로 권리행사를 할 뿐예요. 훗호……」

……(중략)……

「좋도록 해요. 그렇다면! 최후를 각오하면 되는 거니까.」(상 166-167쪽)

「당신이 그럴 경우 나도 그럴 수 있는 걸루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당신도 그런 적이 있단 말이오?」

「그렇다면 또 어찌시겠어요?」

「그땐 마지막이지.」

「마지막이라뇨?」

「나가야지 당신이 이 집을.」

「어머,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약속은 모두 어디 두고요.」

「약속이 무슨 약속이야.」(하75쪽)

「이 화냥년이! 한 놈도 부족해서 두 놈까지! 야 이 개같은 년아, 하숙을 구해준다고 설치던 그때부터였지? 그 놈하고는 또 어떻게 된 내막이야?」(하175쪽)

두 남자와의 관계가 밝혀진 후 남편은 약속을 모두 무화시키고 아내를 쫓아낸다. 약속은 자신의 외도를 무마시키는 전제였을 뿐 진정성이 없었던 셈이다. ‘고용인을 해고하듯’(하201쪽) 쫓겨나온 정우는 ‘응수를 하는 기분으로’ 아무 것도 챙기지 않았지만, 결국 남편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용서를 빌고 귀가하는 것으로 소설은 종결된다.

남성과 여성의 성규범의 이중기준을 확인시키기만 한 채 여성이 있을 곳은 가정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답습하지만, 정절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⁴⁸⁾

소설 곳곳에 드러나 있는 바, 버선 뿐 아니라 한복 일체도 손수 지어 입을 줄 이는 ‘현모양처’적 성향과, 모성애의 결핍을 편찬(162)하는 남편의 언사는 1960년대 남성젠더 시선의 주부상 및 여성성을 확인시킨다. 성규범의 이중규범은 여성의 자유가 ‘법 제도’ 뿐 아니라 가족-일상 범주에서도 폭력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기혼 여성의 연애는 ‘젠더화 된 낭만적 사랑’이었을 확인시키는 사회체계였다. 1960년대의 여성의 자유 및 낭만적 사랑은 미혼/기혼, 남성/여성에게 세대화된 규범, 젠더화 된

48) 최미진,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푸른사상, 2006, 180쪽.

규범으로 인식되고 적용되었으며, 이를 작동시키는 공고한 사회체제는 근대 가부장제임을 웅변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여성의 취향·기호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다. 남성젠더 시선의 소설에서는 취향 및 쾌락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동반하고 있으나, 여성의 성적 자유로서의 연애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여성의 자유에 대한 남성의 태도는 여전히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젠더 범주가 연애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성의 범주임을 거듭 확인시킨다.

2) 자의식적 개체성의 애정불임증과 자기형벌적 연애

『안개부인』이 경제적 무능과 연관된 주부 계층의 여성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다면, 『석녀』는 경제력이 있는 전문직 여성의 자유 및 연애와 사랑을 다루고 있다. 같은 중상층 여성이지만 여성 ‘개인’의 연애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정연희의 『석녀』(1968)는 전작 장편소설로 출간되었으며, 『고죄』(중앙출판공사, 1970),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대운당, 1978) 3부작 중 첫 작품에 해당한다. 드라마 작가인 안지원(29세)은 지적인 신여성으로서, 내면을 팽개치는 것은 표면상의 인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소설사는 1960년대 들어 처음으로, 자의식이 강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잃은 일이 없는’ 내면적 성찰형의 이지적인 여성을 산출해 낸다.

남편의 갖은 외도에 시달리면서도 거의 질투의 정념을 갖지 않는 것은 연애 또는 사랑의 코나투스에서 한발 건너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철저한 ‘외딴 날개’로서, 노라나 안나 카레니나 또는 보바리 부인 등을 모방하지 않는다. 외딴 날개의 비극성을 음미하면서 스스로에게 가학적 인 자학적 형벌을 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지원은 노라도 카레니나도

보바리도 거부하고 내면으로 칩거한다.

‘많은 형제와 가난’이라는 ‘불우한 생활’ 속에서 안지원은 원래 ‘일체의 사랑을 불신’하고 이성과의 타협이 불가능한 여성으로 위치지어진다. 자존심이 매우 강해 ‘어떤 남성도 나의 여성을 지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키워 왔다. 남성지배를 거부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대등한 자유, 내면세계를 지향한다.

외딴 날개가 된 것은 결혼 전 현재의 남편인 남성운과 ‘무감동’하기 짝이 없는 성 관계를 가진데 기인한다. 임신이 되자 임신중절하고, ‘그 남자를 사랑해 본 적은 한 순간도 없’음에도 가족기피증 때문에 남성운을 도피처로 삼아 결혼을 허락하고 난 후부터이다. 나이도 십여 년이나 위인데다 또래의 여자들이 꿈꾸는 남성상이 결코 아닌 남성운에게 당한 후 결혼은 외딴 날개의 삶의 연속이었다.

안지원에게 결혼은, ‘생존의 선택’에 대한 ‘자학’과 남성운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추가된다.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한다’는 ‘어중편 정조관념’을 비웃듯 순결을 의심하는 남성운에게 보복을 가하고, ‘점액성의 연민과 자책’, 그리고 완전범죄에 가까운 ‘자기형벌의 과정’이었다.

외딴 날개가 된 것은 외적 요인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묻고 답한 결과였다. 남성운과 불우한 가정환경이란 외적 요인은 부차적일 뿐 진정한 사유가 되지 못했다.

『석녀』는 이지적인 내면 성찰형의 안지원을 통해 외딴 날개의 연애방식을 제시한다. 안지원은 ‘연애감정이란 자기내부의 파괴인 동시에 창조 같은 것이어서 대상이 문제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할 만큼 연애의 주체를 자신으로 설정하는 자아 정체성을 보인다. 따라서 연애의 주체도 남성운이 아니라 시종일관 안지원이다. ‘완전범죄’의 ‘자기형벌적 연애’의 주도권도 안지원에게 주어지고 ‘배신의 주도권’도 자신에게 있다

고 언급한다. 그런 점에서 안지원은 자존심이 강한, 완전히 자율적인 주체였다. 배신의 주도권까지 자신에게 있다고 봄으로써 삶의 전 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율적 주체로 형상화 되어 있다. 이때까지 한국 소설사에서 이만큼 자율적인 주체가 제시된 적은 없어 보인다.

자기형벌의 과정은 철저한 고립상태에서, ‘무관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여성의 자유’와 연관된 이러한 인식은 ‘자유’의 본질은 고립이라는 안지원의 생각에 기초한다. 사랑은 무한한 자유를 주지만, 그 두려운 자유를 외면하기 위하여 스스로 외딴 날개가 되어 고독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 애정없는 남편과 사는 것은 결혼이라는 간판을 내어 건 창부(301쪽)⁴⁹⁾라고 진단한다. 페이트만이 언급했던 바, 낭만적 사랑을 갈구했으나 그것의 좌절에서 오는 자기형벌을 ‘결혼이란 간판을 내 건 창부’로 진단하는 것이다.

외딴 날개의 자유는 남편의 무분별한 외도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하는데, 서술자는 이를 애정불임증이라 명명한다. 이 소설에서 ‘석녀’란 실제로 생산하지 못하는 몸인 동시에 애정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를 일컫는다. 지원은 혼전 성 관계로 임신하지만 사산하고 다시 회임하지 못한다. 하지만 생물학적 석녀인 것이 그녀에게 갈등요인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안지원은 자아의 승리를 구가하고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자유로움을 느낀다.

..다달이 뱃속의 무게가 더해가고 태동을 느끼면서 가슴 한 구석을 저며 오던 무시무시한 공허...

어린애를 사산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여자는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거의 놀라지도 않았다.....

49) 정연희, 『석녀』, 문예사, 1968. 이후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그것은 애정의 결속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한 생명의 성장과 지독한 자아 속에서 키워지고 있었던 고립감과 싸움에서 그 자아가 새 생명을 이긴 것 뿐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잠재의식은 부단히 그 자아의 승리를 원했었고 만일 그 고집을 이기고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그 상처는 오래도록 그 여자의 인생을 지배했을지도 모를 것이니 평생을 통해 멍에가 되어졌을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 여자는 그 뒤로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33쪽)

모성보다 자아(여성성)를 더 갈구하고 자유를 그리워하는 여성으로서 모성기피도 엿보인다. 안지원같은 여성에게 모성 신화가 끼어들 여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석녀성은 갈등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정신적 불임인 ‘애정 불임증’을 더 문제적으로 제시한다.

선생님의 처녀작인 「석녀」가 국립극장에서 공연될 때 나는 작자와 직접 부딪쳐볼 용기까지 마련했었거든요. 그 애정을 회임하지 못하는 여주인공에 대하여 반발도 하고 존경도 했었어요. 애정불임증의 여인...(중략).... 끝없이 끝없이 사랑을 갈망하면서 끝내 사랑을 회임하지 못하는 여자. 그 많은 남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치 기억상실증의 인간처럼 전혀 다른 세계를 더듬고 있는 여인. 상징적인 현대의 여인이면서 나는 거기서 저자 자신을 보았던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여자가 사랑을 불임하는 이유가 그 여자 자신의 자의식이나 남성적인 냉철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애정의 불임증은 그 자체 내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었어요..... (143쪽)

남편의 일을 돕는 대학생의 「석녀」에 대한 작품평으로, 안지원의 작품 속 여주인공이 바로 저자 자신이라고 언급한다. 그 대학생은 애정

불임증의 원인이 아직 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말하지만 안지원의 불임증은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자의식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이다. 즉 안지원은 자의식적 개체로서 사랑, 연애를 포함한 인생 전반에 관해 냉소로 일관한다. 남성운의 무분별한 성적 편력 역시 안지원을 애정불임증의 ‘조형적 존재’로 만든다. (180쪽)

자의식적 개체의 측면은 서술자에 의해 ‘그 여자’로 불리는 시선처리에서도 확인된다. 1장에서 안지원은 ‘그 여자’로 불리며, 2장에 가서야 ‘지원은’으로 제시된다. 그런가 하면 5장에서는 ‘주인여자’로 호칭되는 등 촛점 화자의 호칭이 느닷없이 바뀐다. 이러한 장치는 안지원의 외딴 날개의 속성 및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려는 서술적 장치로 보인다. 고유명사가 개체성을 부여받는 것이라면, 그럼으로써 따뜻한 시선의 체계에 속한다면, ‘그 여자’라든가 ‘주인 여자’라는 객관적 호칭은 상대적으로 고유명사의 개체적 성격을 박탈하고 익명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냉정한 시선의 체계에 해당한다. 안지원의 애정 불임증은 이러한 시선처리에 힘입어 더욱 더 그 비극성이 고조된다.

안지원이 애정 불임증이 된 이유는 기실 낭만적 사랑 및 ‘구원’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전 꿈꾸었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좌절은 나머지 한 쪽 날개인 ‘솔로몬’ 찾기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이다.

여기서 ‘석녀’는 안지원의 내면적 성찰형의 산물로서 그려지며, 그것을 벗어나는 것 또한 그녀의 ‘선택’으로 그려진다. 신인 영화배우 백민을 ‘솔로몬 찾기’의 해답으로 간주하고 그를 향한 그리움에 남성운을 버리고 백민에게 전부를 걸기로 하지만 다시 솔로몬 왕국은 가슴 안에 있을 뿐이라고 단념한다. 철학도인 하대현은 자유를 고독 속에서 찾는 것은 잘못이라며 진정한 자유는 나를 바치는 사랑 속에 있다고 충고한다. 그는 안지원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안지원이 거절하자 자살로 사랑을 종

결짓는다. 하대현의 자살을 매개로 안지원의 ‘석녀성’은 파괴되고, 불모의 땅에 따뜻한 바람이 일게 된다.

이 소설은 애정불임증의 자기형벌적 연애를 제시하며, 그것을 여성의 자유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또한 구원의 주체 역시 자신으로 설정하는 일종의 ‘자기구원’⁵⁰⁾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여성의 현실이 외적 요인에 의하기보다 자신에 의한다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경제력 있는 전문직 여성의 대두가 일반적 현상이 된 1960년대 후반⁵¹⁾의 사회체계를 확인시킨다. 외딴 날개의 차갑고 음울한 코나투스⁵²⁾는 1960년대 후반의 전문직 여성의 코나투스로서, 능력 있는 여성·자유를 누리는 자율적 여성이 한국사회에서는 ‘냉정’ ‘음울’의 코나투스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 억압되고 모순된 현실을 반증한다. 1960년대 영화가 ‘억척여성’⁵²⁾을 근대화주의 주체의 한 전형으로 형상화하였다면 소설 장르에서 그러한 억센 여자는 1970년대이나 나타났고, 1960년대는 ‘불안 속의 모색’ 속에서 열정이 배제된 냉정, 음울의 코나투스가 더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애정불임증이 내면성과 결합하고 열정의 배제로 나타나는 것

50)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1964)은 구원의 방법으로 ‘사랑’을 제시한다. 사랑에 이념이 통합되는 형태의 구원으로서, 종교적 구원과 같은 절대자의 구원과 다르다. 즉 신을 비롯한 절대자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구원이다. 인간에 의한 구원 중에서도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적 방법이 아니다. 즉 객관적인 사회체제, 사회형식, 사회이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구원을 요청하는 현실적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보기보다 ‘외부’에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정연희와 다르다.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구원의 문제와 여성의 인식방법』,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앞의 책, 207-250쪽 참조.

51) 박길성 외,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백산서당, 1999, 참조.

52) 억척여성의 상징인 ‘또순이’는 1962년부터 등장하지만, 만화, 영화 장르에서였지 소설 장르에서는 아니었다. 『여원』 1962.5 및 1963.1 참조.

은 당연한 귀결이다. 낭만적 사랑의 좌절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낭만적 사랑의 젠더화는 목도되지 않으며, 애정불임증에서 벗어나는 것도 여성 자신의 몫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자유’의 내포 및 외연을 확장해 준다. 이제 여성의 자유는 단순히 외출하고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유에서 한층 더 나아가, 세상을 관찰하고 궁구하며 온갖 선택의 자장 안에 고스란히 놓여진 여성의 완전한 자유, 자율적 주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모성기괴(거부)는 1970년대초 오정희의 초기소설에서 잠깐 제시되었다가 1990년대 여성작가의 소설에서 다시 폭넓게 재현된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여성의 내면-여성의 자유’의 한 원형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애정불임-모성 기괴’의 한 원형을 제시해 주는 기원에 해당된다.

3) 하이틴의 발견과 ‘낭만적 사랑-군사주의 반공 계몽’의 상동성

1960년대는 하이틴의 발견⁵³⁾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전까지는 학생으로 통칭되었던 대상이 세분화되어 국민학생과 하이틴으로 분리된다. 이 분리의 근거에는 군사주의의 세대론도 한 원인이지만 아이 중심의 가족구조 재편 및 교육에 대한 관심과도 이어진다.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1963)은 저자 박계형이 대학생 신분(고려대생)으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도 파격적이었지만, 여고생의

53) 1960년대는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아이중심으로 가정이 재편되던 시기였다. 가정의 재편의 모성 및 주부역할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는 ‘신 어머니’와 ‘신 주부’로 명명되었다.(자세한 것은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앞의 글, 참조). 아이 중심의 가족구조는 자연스럽게 ‘하이틴’이라는 계층의 발견으로 나아간다. 하이틴은 군사주의의 새로운 주체로 요구되었을 뿐 아니라 당대 사회의 제반 문제와 연관된 사안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잡지에는 ‘하이틴을 위한 지면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며(『여원』 1965.7), 『학원』 등의 잡지도 창간된다.

연애를 다룬 하이틴 로맨스⁵⁴⁾의 기원이라는 점에서도 파격적이었다.

동양라디오 개국 기념 50만원 현상모집 당선작인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방송소설이다)은 자궁암이란 불치의 병을 앓게 된 여주인공 한 윤희가 어린 시절부터 친구처럼 지내 온 오빠였다가 남편이 된 성호와 사랑과 그간의 삶들을 회상하며 쓴 회상체의 연애소설이다. 여고생-여대생의 연애를 다룬 전반부와, 결혼 후 전쟁이 터지자 공산당 치안대원으로부터 겁탈당할 뻔 한 위기를 맞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에서는 낭만적 사랑이, 후반부에서는 군사주의 반공 계몽의 논리와 순결의 문제가 초점화 되어 있다.

윤희와 성호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집에서 살았다. 둘의 아버지가 사업 파트너로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성호의 아버지가 죽자 성호의 엄마는 윤희네더러 아예 함께 살자고 제안한다. 성호와 윤희는 마치 오누이같은 관계로서 오빠처럼 좋아하다가 결혼으로 부부가 된 낭만적 사랑의 전형적 사례에 속한다.

이 소설은 남녀의 사랑을 순백의 영혼의 결합(합일적 사랑)⁵⁵⁾으로 설정한다. 뿐만 아니라 연애감정은 불완전한 것으로, 부부에는 완전한 것으로(214쪽)⁵⁶⁾ 설정하여 연애의 성취가 곧 결혼이라는 낭만적 사랑의 각본을 그대로 제시한다. 남녀 간의 열렬한 연애, 사랑이 마르지 않는 부부애, 가정적 사랑을 통한 자아실현은 근대 도시적 상황에서의 낭만적 사랑의 대표적인 형태들이다.⁵⁷⁾ 낭만적 사랑은 어떤 정신적 커뮤니케이션,

54) 김복순, 「해방후 대중소설의 서사방식 (상)」, 『인문과학논총』 제19집,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1999. 제5장 참조.

55) 이는 앤소니 기든스의 유형분류 방식에 따른 것이다.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외 옮김,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참조.

56) 박계형,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삼육출판사, 1965, 1992.

57) 제크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제1장 참조.

즉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성격의 영혼의 만남을 가정한다. 낭만적 사랑에서 개인은 그 사랑의 타자인 대상이든지,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이란 이유만으로도 자신의 결여를 메워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혼의 만남은 실제적인 보상인 결혼을 전제로 함으로써 구체성을 확보하는 일종의 구원의 형태이다. 하지만 구원의 방식에서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이 제시했던 ‘이념’에 의한 구원은 아예 배제하고 상징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의 소멸’을 이루어낸다.

낭만적 사랑이 문제시 되는 것은 근대 가부장제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남녀 간의 사랑을 지배자/피지배자, 보호자/노예(192쪽)라는 구도로 환원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탈각하기 때문이다. 낭만적 사랑에서 여성은 남성의 의존적 대상으로 환원되는데, 윤희는 헌신적인 성호의 보호를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감동하면서(198쪽), 남자를 ‘보호자로 두고 자기는 자진해서 피지배자라는 달콤한 노예로 만들어 아랫자리로 내려 앉아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193쪽)이라고 말한다. 여성의 수동성, 소극성, 의존성을 ‘여성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성호는 윤희와 멋진 남자로 결혼하기 위해 자신은 성공해야 하지만, 윤희는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여자가 애써 공부해 봐야 결국 남의 아내가 되는 게 고작이므로 굳이 공부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여성의 자아실현이 낭만적 사랑의 내포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 때 여성은 주체의 소멸로 나타난다. 실제로 윤희는 ‘사랑(성호)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만족’이다. 윤희의 이러한 사랑관은 주체의 소멸뿐 아니라 시간의 소멸, 사회의 소멸을 불러 온다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6·25 피난길조차 ‘서정과 낭만이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길’로 채색되며, 민족의 대 수난은 풍성한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154, 157쪽)이다.

이 소설에서 6·25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여성의 순결에 관한 부분인데, 치안대원에게 겁탈당할 위기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러나 그건 내게 위대한 교훈을 체험시켰다.

그건 누가 뭐래도 강간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체력을 가진 성정한 여자라면 아무리 미친듯이 날뛰는 남자의 완력이라도 거절할 수가 있다.

물론 여자의 힘이 남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필사적인 반항과 날뛰는 욕정이 마음의 태세에 있어서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164-165쪽)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여성의 순결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그것을 잃는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강간이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강간은 불가항력적이라는 점에서 현대 여성학은 강간을 결코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 또 강간은 여성에게 ‘동의되지 않은 성’이다.

강간에 대한 이 소설의 논리는 처녀막의 순결을 강조하는 논리와도 연결된다. 신혼 첫날 밤 성 관계를 가진 후의 ‘빨간 앵혈’이 ‘자랑스런 붉은 훈장’으로 언표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근대 가부장제가 가문(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였다면, 남성성 상실의 시대에 남성성을 회복하고 집밖으로 나온 여성을 통제하려는 계몽 논리는 여성성의 순결을 강조하면서 전통과 여성을 결합시킨다.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1960년대에 군사주의 집단이 여성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성호는 ‘한복’을 ‘정장’(양장을 의미함)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면서 전통적 여성 이미지를 강조한

다. 여성을 과거의 지점에 남아 있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려는 시선이다.

순결·순수·전통은 여성과 전통의 배치에서 항상 등장하는 연결고리이다. 그런데 이 배치는 새시대의 주체로 하이틴을 호명하는 기제와 연결된다. 즉 새 시대의 주체는 전쟁책임과 분단 책임의 구세대가 아니라 신세대여야 한다. 이것이 1960년대의 소설 및 영화가 ‘청춘’과 결합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구세대인 여성들은 모성으로 환원되거나 주부로 호명되어야 했다. 출산하고 젖을 물리는 윤희의 모습을 보며 성호는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젖을 물릴 때’라고 함으로써 여성성을 ‘모성’으로 상징하는 ‘범주 우선성’을 보인다. 가부장제는 여성성을 모성으로 간주함으로써 모성 신화를 지속시켜 왔는데, 여기서도 성호의 시선이 가지는 여성성의 우선성은 모성이다.

이러한 순결 및 모성 환원 논리는 군사주의의 전통 논리와 연결된다. 1960년대의 전통 논리는 1950년대의 전통론⁵⁸⁾과 다르다. 1950년대 전통론이 전후의 위기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⁵⁹⁾ 1960년대의 전통론은 재건론에 기초해 있다. 1950년대는 전후 남성부재의 현실과 미국문화의 유입이 가부장제를 위협하면서, 내적 규율로서의 유교윤리와 정신이 강조되어야 했기에 ‘전통적 부덕’이 찬양되었다.

이 소설에서 1960년대는 모성, 순결, 복종, 한복 등의 전통적 덕목들⁶⁰⁾

58)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제 45집 2호, 7-48쪽.

59)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제 45집 2호, 7-48쪽 참조.

60) 군사정권 초기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 경제개발로 대변되는 근대화가 강조되었던 반면, 1960년대 후반에는 민족중흥이 강조되며 이는 민족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신근대화 운동이라고 선전되었다.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제4호, 1998, 145쪽.

이 가부장의 권한 강화 및 반공주의의 정착과 연관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보듯 1960년대의 ‘전통’과 ‘여성’은 근대성과 역사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처럼 추상화되어 그려졌으며, 이는 군사주의가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이는 1970년대의 폭넓은 ‘이조여인’ 논의로 연결된다.⁶¹⁾

한편 이 소설에서는 군인이 위대·위용·정의·힘·영웅(187쪽) 등의 개념과 결부되는 반면, 인민군, 치안대원에 대한 묘사는 지게꾼 머슴 출신, 아버지·우둔·잔인·단순이란 단어와 결부되어(162, 174쪽) ‘어리석고 무식함’으로 형상화 된다. 반공은 ‘희망’으로 묘사되어 ‘밝음’ ‘평화’ ‘안식’ ‘안락’ ‘행복’ 등의 코나투스⁶²⁾로 재현되어 있다.(192쪽) 즉 순결 논리가 군사주의 및 반공 논리와 상동구조임이 확인된다. 이 소설은 이처럼 군사주의 반공의 계몽 창구, 근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유포하는 창구역할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3. 맺는말

이상으로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양상과 그것이 젠더에 의해 어떻게 전유되는지 살펴보았다. 연애는 사적 감정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체계로서 코나투스를 지닌다. 1960년대 연애에서 우선성이 가장 작동하고 있는 범주는 ‘젠더’ 범주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성젠더와 여성젠더 시선으로 나누어 연애가 각 젠더 시선 속에서 어떻게 전유되는지 그 양상을 검토하였다.

1960년대 남성젠더 시선의 서사에 나타나는 연애의 키워드는 ‘정착,

61) 정지영, 「1970년대 ‘이조여인’의 탄생 : 조국근대화와 ‘민족주체성의 타자들」, 『여성학논집』 제24집 2호, 2007, 41-76쪽.

소외, 육체'였으며, 여성젠더 서사의 키워드는 '취향, 구원, 순결'이었다.

1960년대 소설의 미적 주체들은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전개되는 '불안'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모색을 꾀하는 불안 속 '모색'의 서사를 제시하는데, 사회체제로서 1960년대의 연애는 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남성젠더 서사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남성 중심적 소시민성과 폭력·쾌락적 연애를 제시하였고, 낭만적 사랑이 형상화 되지는 않았다.

뜨내기라는 집합적 개체성을 드러내는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에서 연애는 '살림을 차리'는 것, 즉 '정착'의 매개로 묘사되었다. 정착의 매개로서의 연애는 불쌍함, 눈물, 동정 등의 코나투스도 나타났으며, 따뜻한 애정의 남성젠더적 시선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 및 극복의 의미까지 부각시켰다. 뜨내기들을 집합적 개체성으로 호명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범주 우선성'은 계층과 사회였으며, '눈물'과 '동정'의 윤리는 집합적 개체성을 떠받치는 소설적 장치였다.

김승옥의 모색은 '자기세계'로 명명되었는데,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정착 중이거나 이미 정착하여 속물이 된 인간 군상, 즉 분열된 개체성의 물화와 소외 및 폭력적 연애를 제시하였다.

김승옥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부정'한다. 연애가 폭력적 남성성 및 여성성의 소외로 제시되고, 여성을 타자화·대상화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분열된 개체성의 코나투스는 번뜩이는 첩첩, 눈뜰 수 없는 현기증, 끈덕진 살의, 암울을 쥐어짜는 회오와 사랑, 어둠과 음란의 냄새로 나타났으며, 열정이 배제된 사랑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김승옥의 연애는 근대화라는 폭력적 남성성을 환유하는 매개로서, 분열된 개체가 폭력적 근대화에 길항하는 방법이었다.

손창섭의 『부부』는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이미 정착하여 '육체'를 음미하게 된 소시민을 보여 준다. 부부간의 성적인 '미묘한 부조화'에 대한

타개책으로 스와핑을 제시하고, 실추된 남성성에 대한 회복 및 제치권(制妻權)의 확립 문제,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관련된 '절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모' '국가 사회를 위한 보건계몽봉사' 등과 관련된 1960년대의 재건 계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문제적이다. 군사주의의 재건 계몽의 논리는 쾌락적 연애에 대한 처벌 및 그 대안으로서 국가·민족을 위한 아가페적 사랑과 종합적인 힘과 권위, 그리고 낭만적 사랑에 연연하지 않는 이성적인 현모양처 자질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여성젠더 서사에서, 연애는 '여성의 자유'에 대한 모색과 낭만적 사랑과의 연관을 드러내었다. 낭만적 사랑의 동경 및 좌절을 다루고 있으며, 이 점이 남성젠더 시선의 연애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여기서는 여성의 자유가 취향 및 선택,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선포한다. 1960년대 소설은 이제 여성의 남성 취향 및 감각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하는데, 전병순의 『안개부인』과 정연희의 『석녀』는 이러한 내포와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특히 『석녀』는 애정불임증의 자기형벌적 연애를 제시하며, 존재의 확인 및 구원의 주체 역시 자신으로 설정하는 '자기구원'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었다. 여성의 현실이 외적 요인에 의하기보다 자신에 의한다는 완전히 자율적 주체의 여성은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하였다.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은 하이틴의 발견과 군사주의 반공 계몽의 상동성을 보여 주었다. 여고생-여대생의 연애를 다룬 전반부와, 결혼 후 전쟁이 터지자 공산당 치안대원으로부터 검탈당할 뻔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에서는 낭만적 사랑이, 후반부에서는 군사주의 반공 계몽의 논리와 순결-전통의 문제가 초점화 되어 있다. 순결-순수-전통 개념이 군사주의 반공 계몽의 논리와 자연스럽게 결부되어 있었으며, 근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유포하는 창구역할을

하였다. 이는 군사주의 반공 계몽이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여성젠더 시선의 서사에 나타는 낭만적 사랑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전병순과 정연희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동경은 근대 가부장제에 길항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1960년대 여성작가에게 드리운 전반적인 부정적 혐의는 거두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 1, 문학동네, 1995, 2004,
김승옥, 『김승옥전집』 1-5, 문학동네, 1995,
박계형,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삼육출판사, 1965, 1992.
손창섭, 『부부』, 『손창섭 대표작전집』 2, 예문관, 1970.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이호철전집』 7, 청계, 1991,
전병순, 『안개부인』, 자유문학사, 1978.
정연희, 『석녀』, 문예사, 1968.

2. 논문

- 김복순, 「해방후 대중소설의 서사방식 (상)」, 『인문과학논총』 제 19집,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1999. 33-60쪽.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8호, 2007. 7-60쪽.
김영찬, 「불안한 주체와 근대」, 『상허학보』, 12집, 39-65쪽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제 45집 2호, 7-48쪽.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제4호, 1998, 121-152쪽.
정지영, 「1970년대 ‘이조여인’의 탄생: 조국근대화와 ‘민족주체성의 타자들」, 『여성학논집』 제24집 2호, 2007, 41-76쪽.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196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1998, 13-43쪽.
황정미,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3. 단행본

-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 이호규 외, 『이호철 소설연구』, 새미, 2001.
- 전경옥 외, 『한국여성문화사』 2,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 천이두 외, 『이호철 소설의 일반론 및 작품론』, 새미, 2001.
- 최미진, 『한국 대중소설의 틈새와 심층』, 푸른사상, 2006,
- 최미진,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푸른사상, 2006,
- 루만, 『사회체계이론 1, 2』, 한길사, 2007,
- 리타 필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 알렉상드르 마트롱, 김문수·김은주 옮김,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그린비, 2008.
- 재크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 캐럴 페이트만,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후, 2001.
- 芝原宏治 외, 『都市と 故郷の フィクション』, 清文堂, 2007.
- 小谷野敦, 『‘男の戀’의文學史』, 朝日新聞社, 1997.
- N. Luhmann, Love as Passion, Staford Univ. Press, 1982.

Abstracts

Love Appropriation and Gender in the 1960's Narratives

Kim, Bok-Soon

Love is a conatus-social system. In 1960, gender was the most predominant category in narratives.

The key words of love in male-gender point of view in 1960's was 'settlement, alienation, and body', and the female-gender was 'taste, deliverance, and virginal purity.' Male-centered petit-bourgeois and violent, sensual love was a common factor in male-gender narratives, therefore, they never have romantic love.

In female-gender narratives, love was a way to 'the liberty of women' and to 'the romantic love'. Womens' stories were focused on anxiety and frustration regarding to 'romantic love',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male-gender narratives.

Such a 'romantic love' does work in good ways. Since they were against the modern patriarchy, preoccupied negative valuation on 1960's female writers should be withdrawn.

Key Words

Love as conatus-social system, Love as settlement·alienation·and body, Love as taste, deliverance, and virginal purity, romantic love, swapping, militarism, anti communist enlightenment, reconstruction enlightenment, *Seoul is full*, Kim, Sueng-Ok, *Man and Wife*, *Mrs. Mist*, Barren Woman, Park Keoy-Hyong

* 위 논문은 2008년 4월 30일에 투고되어 2008년 5월 3일에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2008년 6월 3일 심사 완료 후 6월 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